



‘부르고뉴 피노의 꽃, 꼬뜨 드 뉘 핵심 산지’

알베르 비쇼 픽생 프리미에 크뤼 끌로 드 라 피에르 모노폴

Albert Bichot Fixin 1er Cru Clos De La Perrière Monopole

지역	프랑스 > 부르고뉴 > 꼬뜨 드 뉘
용량	750ml
등급	프리미에 크뤼
테이스팅 노트	블랙 체리와 야생 딸기의 향. 실키한 탄닌. 석회토 베이스로부터 나오는 미네랄 캐릭터가 매력적이다. 입에서는 복합적이고 과실과 감초, 주니퍼 베리의 풍미들이 감지된다.



제품설명



픽생 지역에는 그랑 크뤼 빈야드는 없지만 상볼 뒤흐니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뛰어난 떼루아로 유명하고 균질한 석회질 토양을 가지고 있다.

이 와인은 약 한 달 정도 온도 조절 오크 탱크에서 보관되어 14~16개월간 오크 숙성을 거친다. (뉴오크 30%)

수상내역



2020빈티지 버그하운드 Burghound.com 92점

2020빈티지 인터내셔널 와인 챌린지 IWC 92점 Silver medal

2020빈티지 와인 스펙테이터 Wine Spectator 93점

와이너리



1831년 Bernard Bichot에 의해 설립되어 가족 소유로 경영되어 온 알베르 비쇼(Albert Bichot)는 현재 6대째 자손인 알베릭 비쇼(Alberic Bichot)가 운영하고 있다. 최근 10여년 동안 부르고뉴 와인을 이끌어가는 선두주자로써 주도권을 가지고 독창적이고 혁신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알베르 비쇼는 부르고뉴 지역 4위의 업체이다. 매출의 70%를 전 세계 100여개 국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이는 부르고뉴 지역의 수 많은 와인들을 우수한 품질로 생산해내고 있는 노하우에 기반한다.

알베르 비쇼는 총 6개의 와이너리를 소유하고 있으며 총 6명의 와인메이커가 각각 다른 와이너리에서 각각의 떼루아를 고려하여 양조하며, 이것은 알베르 비쇼만의 특별한 철학이다. 알베르 비쇼는 스웨덴 왕실 공식 와인 공급업체이며 대한항공 퍼스트 클래스 서빙 와인으로 사용되고 있다.

※ 와인의 이미지와 빈티지, 블랜딩 비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와인은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온도에서 누워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